



“여전히 마음 비추는 거울”
열네 번째 ‘영주문학’ 발간

영주문학회는 작품집 ‘영주 문학’ 제14호를 냈다. 변화하는 독서 환경 속에서 문학의 본질과 지속 가능성은 모색한 결과물이다.

기획특집으로는 ‘한국 수필문학의 고찰’을 주제로 수필문학의 흐름과 가능성을 조명한다. 초대작으로는 한국 시문학의 거목 나태주 시인의 ‘그 말’, ‘동백꽃’과 안상근·강상우 시인의 작품을 실었다. 또 제주어·디카시·시·수필 등 회원들이 쓴 25편의 작품도 담았다.

허경종 회장은 “종이책을 읽는 사람이 줄어드는 시대이지만 문학은 여전히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가장 오래된 거울”이라며 “빠르게 소비되는 말과 영상에서 잠시 벗어나 천천히 읽으며 자신의 삶과 시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소정기자



제주·오키나와현 국제교류전
4월 6일까지 평화기념관서
신문·사진·영상·그림 통해
각 지역서 서로 아픈 역사 조명
“기억의 계승으로 평화 모색”



나카 보쿠넨의 ‘부세나꽃’.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평화로운 풍경의 오키나와를 그린 판화 작품이다.

아픈 역사인 제주4·3과 오키나와 전쟁의 기억을 연결한다.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기념관 기획전 시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교류전 ‘오키나와의 마음: HEART OF OKINAWA’에서다.

제주4·3평화재단과 일본 오키나와현청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제주4·3과 오키나와전쟁이라는 동

아시아 현대사의 두 비극을 통해

국가 폭력과 전쟁이 민간인에게 남

긴 상처를 성찰하고 기억의 계승을

통해 평화의 가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제주에선 오키나와

전쟁을, 오키나와현에선 제주4·3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지역에서 서로

의 아픈 역사를 다룬다.

오키나와는 일본 제국주의가 벌

인 태평양전쟁 말기 1945년 오키나

와 전쟁에 휘말리며 20만명이 넘는

희생자가 스러져갔다. 이 중 상당

수가 민간인이었다. 이 같은 전쟁

의 기억은 전쟁 전후 오랜 시간 동

안 구조적 침묵과 왜곡 속에 놓여

있었다. 그럼에도 오키나와 시민들

은 전쟁의 기억을 기록하고 전승

하는 실천을 통해 평화 담론을 형

성해 왔다.

이번 전시는 반복된 국가 폭력,

침묵의 강요, 그리고 기억을 회복

하려는 시민의 실천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에 주목한다. 제주 전

시에서는 오키나와전쟁의 역사와

이야기를 전한다. 오키나와전쟁을

겪은 이들의 기억을 담은 영상, 사

진, 신문자료 등을 보여준다. 전시는 오는 4월 6일까지 이어진다.

오키나와에서도 전시를 잇는다. 다음달 26일 오키나와현에서 4·3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자료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4·3평화재단 관계자는 “제주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에 등재된 이후 마련된 국제 교류

전시로, 지역의 고통과 기록과 연

대를 통해 세계사적 교훈으로 확

장되는 과정을 조망할 예정”이라

고 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유영미 ‘해녀’

섬 속 삶 일궈온 제주인… 그 시간이 남긴 색

유영미·현수연 2인전
10일부터 갤러리 벵디왓

제주에서 활동하는 유영미·현수연 작가가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8일 까지 제주민속자연박물관 갤러리 벵디왓에서 2인전 ‘바람이 만든 섬, 시간이 남긴 색’을 연다.

이들은 바람에 깨인 현무암의 거친 질감, 억센 돌담 등 척박한 제주의 자연과 그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삶을 일궈온 제주인의 삶에 주목해 온 작가들이다.

이번 전시에선 두 작가가 바라본 제주의 자연과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채로운 색채로 담아낸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들은 “작품 속에 그려진 제주의 모습에서 섬의 외형을 보는 것을 넘어 자연과 사람이 겹쳐 만들 어낸 묵직한 유크립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박물관과 예술가가 협력하는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의 ‘지역문화 상생·협력 전시 사업’으로 마련됐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박소정기자

현책이 순환·자립 있다… ‘또뜻한책방’

현책 기반 복합문화공간

기부 통해 2만권 모아



또뜻한책방 내부 모습

‘현책’이 자원순환과 자립을 잊는다.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가 문을 연 현책 기반 복합문화공간 ‘또뜻한책방’의 이야기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제주시 삼도1동에 문을 연 또뜻한책방은 재활용·재생산·재나눔을 핵심 가치로 한 자원순환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곳으로, 도서의 재사용과 순환을 통해 환경 보호와 자립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실현하는 공간이다.

책방에는 현책 2만권이 기부를 통해 모아졌다. 책방에선 도서 판매(일반 도서 3000원·아동 도서 1000원)와 함께 10일간 1인 2권씩 무료로 책을 빌릴 수 있는 대여 서비스도 진행된다. 지역 주민과 단체들의 열린 공간으로 한편에 카

페 공간도 함께 마련했다. 독서모임, 강연, 협약식 등 소규모 모임이 가능하다.

센터 관계자는 “또뜻한책방은 자원순환과 자립을 잊는 공간”이라며 “‘또뜻한(제주어로 따뜻한)’이라는 이름처럼 책방이 지역주민 누구나 머물며 배우고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뜻한책방은 제주시 서사로 107에 위치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전화 064-722-8219)로 문의하면 된다.

박소정기자

“제주가 만든 음악, 세계와 만나는 사례”

홍정호 작곡가 국제 출판



앞서 흥 작곡가는 유니버설 에디션 예술위원회의 약 8개 월간의 심사를 거쳐 아티스트로 선정됐으며

이후 출판 준비 과정을 거쳐 작품이 국제 카탈로그에 등재됐다. 현재 작품은 유니버설 에디션의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 전 세계 연주자와 오케스트라가 구매·대여할 수 있다.

그는 “지역에서 태어난 창작이 세계와 만나는 하나의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로 탐구하는 방식으로 올 한 해 동안 진행된다.

1분기 프로그램인 서귀포시 탐구 생활-역사편은 김천석 제주대 생평 교육원 강사의 지도로 운영된다.

신청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김채현기자

“서귀포시 역사 탐구해요”
서귀포도서관 참가자 모집

서귀포도서관이 지역 인문프로그래姆 ‘서귀포시 탐구생활’을 다음달 6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귀포시 동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을 분기별

왕방울 은행나무 성목 판매 (200본)



- 공원 조성용(열매 냄새 없음)
- 수령(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음)
- 재래종 보다 열매는 2배 큼
- 개량종(부채꼴, 대접꼴, 밤통꼴)

문의 : 010-4693-1698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화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정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전화 753-0404 FAX 751-0045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 가

大勢
대 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 · 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05년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G마트 품질인증

2005년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 신뢰도 1위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구독 750-2330·서귀지사 732-5552

제주의 대표신문
ihalla.com

